

<현종광의 물고기를 위한 메이커 업 >

김종근 (미술평론가. 홍익대 겸임교수)

80년대초 대다수의 미니멀 아티스트들은 현대미술이 비디오 아트나, 퍼포먼스, 개념미술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진단했고, 심지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나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제 현대미술사에서 회화는 죽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회화는 80년대 들어 더욱 폭발적인 인기 속에 신표현주의의 열풍을 몰아왔다. 회화의 전성기와 신표현주의를 설명 할 때 등장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묘하게도 21 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평면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이 입체로부터 가해져도 회화는 아직도 매력 있는 미술로 살아 있다. 현종광의 그림도 마찬가지로 평면으로의 복권을 꿈꾸듯이 화면과의 치열 한 대결을 도처에서 보여준다.

최근 그의 작업은 초기에 강렬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에서 나아가 모노크롬 계열의 백색 회화를 표현주의 화풍과 합치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그의 과거 그림의 궤적과 향방을 제시 해준다. 이전의 형상성을 추구했던 작품들에서 점점 미니멀한 인상을 가미시킨 작품들이 근래 들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 인상들은 대부분 물고기의 형태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여기서 물고기의 형태들은 때로는 머리 부분만 나타나기도 하고 전체가 묘사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가 매우 생김새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흥미로운 첫째 이유는 화면에 사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사실적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짙은 사진처럼 물고기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기의 외형을 취할 뿐이다.물고기의 색깔도 분위기도 생동감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가 꼼꼼하게 그려내는 것도 오직 물고기의 비늘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치 추상회화나 기하학의 유형에서 연상되듯 사실성을 배제한다.

우리는 그의 1, 2 회전의 작업을 통해서 또는 이미 한 권의 카툰집을 통해서 그가 매우 사실적인 묘사와 표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림답게 만드는 능력과 재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카툰집에서 보이는 유머러스함과 기발함, 웃음을 자아내는 화면 속에 넘치는 회화적 상상력은 그의 회화에 특질로 전개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그가 화려한 색채와 사실적인 형태들을 살리지 않고 화면에서 절제하는 것은 그의 그림을 미니멀적 양식으로 혼합하려는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그러나 고기의 비늘 부분에서만은 그가 카툰 필선의 터치처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믿고 확인 해 왔던 것에 대한 사실화” 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다분히 사실성과 미니멀적 표현의 조화를 노리는 듯 한 그의 이런 작업 방식은 자유로운 표현의 감성적인 결합을 꿈꾸는 사고에서 출발한 작업방식이라고 유추된다. 그 고기의 형태나 가느란 선들로

완성된 백색 톤의 조화로운 모습들은 추상 미술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회화적 성격이다. 그럼에도 그는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강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풍요롭게 재현되는 고기의 형태는 구성에서나 기법에서나 개성적인 형태의 언어로 부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고기는 그 자신을 동일시 또는 반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 이런 선의 반복적인 형식의 미니멀리즘의 경향들이 자유롭게 구사된 드로잉적인 선들과 일치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그의 작업관은 아직 명확하게 가시화 시키고 있지는 않고 있다.

어쨌든 현종광의 그림들은 묘사에서는 서술적 회화의 화풍을 따르고 있으면서 화면의 구조에서는 추상적인 패턴들을 이상화시키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특히 그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형 중에서 원의 형상이 화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형태의 반복을 통한 화면의 구성력을 지탱하려는 요소로 이해된다. 물론 그러한 간헐적인 원의 등장도 화면의 조형요소로서 얼마만큼의 제 기능을 할 것인지는 구성적인 면에서 새로운 반응의 미적 형식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자신의 중요한 모티브인 물고기가 이미 화면에 구체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고 모티브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효과는 그가 사용하는 한지와 아크릴 물감이 만나서 빚어내는 질감들에서 명확하게 구축된다. 그의 작품에 아크릴이나 한지 그리고 릴리프적인 콜라주의 재료들은 우리의 감성에 젖어있는 형태와 색채의 미묘한 흐름과 기억을 끌어낸다. 물고기의 얼굴들은 자유롭게 연상되는 풍부한 상상력과 만나면서 인간의 내면을 향해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더욱 그림다운 회화성을 살려주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작품을 보면서 눈과 가슴으로 느끼는 새로운 경험이다. 그 경험은 한지의 물성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고기의 이미지를 다시 우리에게 바꿔주는 기능도 맡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화면의 모노크롬적인 설정보다 표현주의 적이며 흡사 르네 마거리트가 보여준 초현실주의의 세계를 2 차원의 평면에 복귀시키면 어떨까 혹 그것이 매력 있지 않을까 상상한다. 그러나 그의 균제와 절제가 조용하게 화합된 작업들은 안정된 화면을 흥미롭게 재현의 방식으로 바뀌주고 있다. 기이하고 변형된 형태들은 사라지고 단순히 키치처럼 거론되던 단정함이 화면 속에 정형화되어 있다. 그는 재현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시도한다. 그것은 패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종광의 작업들은 부조화를 조화롭게 연출하려는 시도를 일관되게 해 보인다. 이러한 그의 조형어법들은 그의 작품들을 분명 무거운 테마를 가볍게 노출시키며 차분한 여행기를 읽어 주듯이 경쾌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화면 속에서 나와 타자간의 일체감을 상승화 하여주고 있다는 점이다.